

American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서 유 리* · 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A Study on the American Hippies and Their Fashion

Yoo Lee Seo* · Kyu Wha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en's University

(1994. 10. 18 접수)

Abstract

This study, on the American hippies and their fashion, is composed of an examination of the following: the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America in the late 1960'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ppies that appeared in the midst of the foresaid background, how those factors materialized in the hippies' distinctive fashion and how they influenced fashion to come.

The hippies were composed of the young generation that revolted against all general conventional values of American society and seceded from it, seeking for the ideas of love and freedom. They expressed their newly defined culture-rock music based on drug culture, psychedelic art, rejection of an established society and ethnic tastes that sprang up from nostalgia concerning nature-by means of their own distinctive fashion. And as a revival of the hippies' fashion, neo-hippie and grunge fashions newly appeared in the F/W season of 1992 and afterwards, adding fresher and more abundant sensibility to the original image and layered look of the hippies.

The hippies' fashion has not only played a significant part in modern fashion history but will continue to exert its influence in the 1990's as the hippies generation are presently the center of American culture and leaders of world culture. In conclusion, various sorts of "individuality" and "the pleasure in the wearing itself" expressed by the original layering of the hippies' fashion presents new promise in the coming development of fashion.

I. 서 론

본 연구는 미국의 히피(hippie, hippy)와 그들의 복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1960년대 말 미국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 가운데 출현했던 히피의 특성,

이러한 요소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히피 특유의 복식과 그것이 그 이후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의 패션산업침체가 계속되던 가운데 히피 패션이 1992년 추/동시즌이래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되기 시작하였다. 히피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성격 을 가지고 반전과 사랑을 외치며 자연에 심취했던 전

후 베이비 붐 세대로, 그들의 패션은 1960년대 영의 이색적인 패션이 이색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통파적인 패션의 성격을 띄게 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이 1960년대의 히피세대들이 미국사회 지도층의 대부분을 형성하면서 미국과 전세계를 이끌고 있는 1990년대 초에 재등장했다는 사실은 미국사회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히피 철학의 뿌리 깊음과 1990년대와 1960년대의 정신, 사회, 경제, 종교, 풍속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특수성의 존재를 실감하게 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영향관계가 히피문화의 자양분을 취하고 있는 지금의 젊은세대가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2000년대에도 계속될 것임을 문화적 연속선상에서 예측할 수 있다.

히피에 대한 연구로는 야블론스키(L. Yablonsky)의 「The Hippie Trip」 등이 있고, 히피 패션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민자의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과 나채희의 「New Wave Fashion」 등이 다른 여러 하위문화복식들과 함께 히피 패션을 다룬 바 있으나, 히피 패션만을 주제로한 연구의 예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히피의 근원지인 미국의 히피 패션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여전히 세계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과거 1960년대의 히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유산과 그것이 1990년대와 그 이후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히피에는 그 사상과 생활방식에 따라 사회운동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던 순수한 히피들과 그들을 일시적으로 추종한 모방자나 여행객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존재한 예술가들이 있다. 이 가운데 모방자나 예술가 부류의 복식은 순수한 히피 복식의 이미지를 당시의 전반적인 패션 흐름이나 의생활 환경과 혼합하여 재현한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히피 자체만의 복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룩(look)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어떤 이미지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대중 패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순수한 이미지 자체 보다는 재현된 형태가 대중화를 위한 과도기적 표현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방자나 예술가의 복식도 1960년대 히피복식의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당시 부유층의 히피 취미나 일반에게 대중화된 이후 기성복으로 양산된 히피 패션은 순수한 히피 패

션의 내용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모우드(mode)는 외면에 의해서 보여진 인간의 삶의 방법, 생활태도, 인생태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에 나타난 모드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인간의 인생관, 세계관과 그 배경이 된 사회, 문화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960년대에 출현한 히피 패션도 예외는 아니었다. 히피패션을 통하여 당시 젊은 세대의 인생관과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히피 출현의 시대적 환경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60년대 히피의 복식을 그 배경이 된 사상이나 문화적 환경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표현 형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하이 패션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 거리의 보다 단순한 히피 복식을 연구하기 위해 히피 관련 문헌에 수록된 1960년대 히피들의 실제적인 사진자료를 활용하였다.

II. 히피의 출현과 그 시대적 환경

“히피(Hippie 또는 Hippy)”라는 명칭은 원래 이 전시기의 음악가들과 여타의 보헤미안들이 붙여준 다소 겸손한 느낌의 별명으로서, 20세기 초에 재즈 음악가들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해 50년대 중반부터 beat세대에 수용된 은어, “hep”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Webster 사전에 의하면 Hippy를 심기증환자(hypochondriac)로 정의하면서, 그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 “hipped”를 “좌절한, 원기가 없는, 비이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depressed: low-spirited, and having one's interest unreasonably centered: obsessed)”라 서술하고 있다.

히피 출현의 가장 직접적인 근원은 보헤미아니즘의 전통 속에서, Sartre와 de Beauvoir의 실존주의적 가치와 허무주의에 기초하여 행동에 대한 일체의 제약과 전통을 거부했던 비트(beat) 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미국은 경제적 풍요속에 획일화와 동질화의 양상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구성원 개개인은 거대 조직 사회의 한 부속으로 전락하고 있었으며, 비트 세대의 영향은 캘리포니아의 잭 커로악(Jack Kerouac)이나

앨런 긴스버그(Allen Ginsberg)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실험적인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들 비트족은 1960년대 초에 브니스 웨스트(Venice West)와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의 중심부로부터 노스 비치(North Beach), 캘리포니아, 맨하탄 남동부를 거쳐 샌 프란시스코의 하이트 애쉬베리(Haight Ashbury; 약칭 Hashbury) 지역으로 나왔으며, 이후 Hashbury는 보헤미아니즘의 새로운 요람으로 성장하여 히피의 중심지가 되었다.

미국의 1960년대는 자본주의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과 발언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참뜻을 실현하려는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경제적 성장이 동반한 부의 편재와 케네디와 존슨이 이끈 민주당의 다소 지나칠 정도의 자유주의적 분위기는 사회도처의 의식있는 소외집단들로 하여금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게 하였다.

1964년부터 미국의 월남전 개입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면서 반전운동과 반항의 물결이 미국 전체를 휩쓸었다. 이런 가운데, 기존체제에 대한 반항의 중심이 된 세력은 대학생들 이었다. 그들은 풍요의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나 자신의 양심과 이상이 이끄는대로 자유로이 행동함으로써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기존체제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이들 청년층의 반항의 움직임은 기존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한 급진주의의 신좌파와, 반대로 기존사회에서 이탈(dorp-out)하여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구한 히피의 두갈래로 나뉘어졌다. 특히 히피들은 사랑과 평화의 구호를 외치면서 확인한 자신들의 세대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일된 문화를 형성했다.

히피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약물이었다. 청년기는 누구에게나 자의식이 강한 시기이지만, 특히 히피들은 과도하게 자기분석적인 경향을 띄어 개인이나 공동체의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에 관한 탐구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기존 사회로부터의 도피나 보다 의미있는 삶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약물이었다.

약물문화는 록음악의 정에도 파급되어, 1960년대말 록음악의 주제를 당시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모시켰

다. 새로운 록음악의 관능적이고 불안정한 리듬과 성난듯한 강렬한 음조는 히피들에 의해 제시된 새로운 생활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되는 것들이었다. 그레이트 플 데드(Graeteful Dead), 제퍼슨 에어플레인(Jefferson Airplane), 퀵실버 메신저 서비스(Quicksilver Messenger Service)같은 록그룹들은 약물복용에서 느끼는 시청각적 혼란을 록음악으로 분출시켰으며, 롤링 스톤즈(Rolling Stones)나 비틀즈(Beatles)같은 영국 그룹들도 실험적 색채를 띄면서 변모하고 있었다. 특히 이와같은 변화의 절정을 이루었던 우드스톡(Woodstock) 록 페스티벌(1969)은 히피철학이 기존 체제에 대한 단순한 거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체제의 정립임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마약문화의 분출구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한 것같은 환각증세를 일으키기 위해 강렬한 빛, 음향, 색채, 진동의 동시 자극을 연출함으로써 인간의식의 확대를 시도한 사이키델릭 아트(psychedellic art)였다. 「Time」지는 당시에 새롭게 선보인 미술표현양식이었던 사이키델릭 아트에 대해 “20세기초에 유행했던 아르누보의 곡선 스타일이 되돌아와 그 덩굴이 텔레비전에서부터 카프탄의 프린트에 이르는 모든 그래픽 디자인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이키델릭 아트 디자인은 포스터, 광고, 인테리어 제품뿐 아니라 스카프나 옷감의 프린트에도 크게 유행하였으며, 히피들은 그 현란한 색채를 자신들의 자동차에 페인팅하기도 했다.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함께 현실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소속사회에서 이탈하여 재산, 애정, 자녀를 공유하며 자급자족하는 공동체 생활에 의탁하는 것이었다. 또 전원 공동체 생활을 통한 자연에의 접근과 보다 심오한 실재에 대한 추구는 민속풍(ethnic)예술이나 민속촌 의복 등 민속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경향은 값싸고 강한 대마초나 불교의 사랑에 대한 교리 등을 구하기위한 동양으로의 여행이 증가하면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한편, 성에 대한 면을 포함한 모든 가치에 있어서 히피문화가 보여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이 문화적 반란과도 같이 이시기의 전 예술계에 파급되었다. 이는 1968년에 개막된 뮤지컬 Hair를 시발로 반문화 움직임이 거세어지는 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했

다.

III. 1960년대 말 히피 복식의 특성

1960년대 말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는 의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킴으로써 이제까지의 유행의 흐름을 역전시켰다. 패션은 저소득층이나 그들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인 고소득층의 젊은이들로부터 고소득층으로 상향전파 되는(upward-flow) 양상을 보였다.

이시기의 대표적인 청소년 패션은 히피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히피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은 스타일의 다양성이었다. 그들은 보편적인 청바지에서부터 ethnic, nostalgia, 사이키델릭(Psychedelic), 최첨단의 미니와 힙스터(hipster), 그리고 전시대의 모조족(mods)과 비트족 스타일에서 영향받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없이 착용자의 개성에 따라 코디네이트시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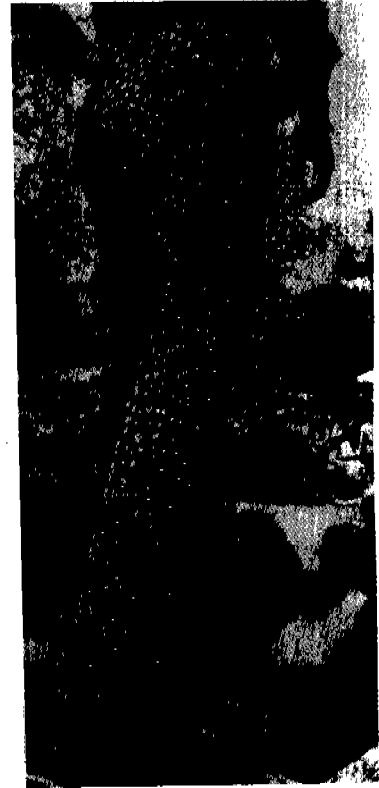
히피 패션의 다양한 표현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반문화(counterculture)’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히피의 반문화의 성격을 그 조형적 의지에 따라 ‘저항과 약물문화’, ‘사랑과 자연’, ‘ethnic과 nostalgia’, ‘개인주의’의 네 부분으로 분류하여 집약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밀접한 연계를 찾아 편의상 나눈 구분일 뿐이며, 실제로는 모든 범주가 반문화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해 근본적으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나의 복식표현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동기들이 배경을 작용한 경우도 많았다.

1. 저항과 약물문화

히피는 미국 사회의 도덕적·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뿐 아니라 미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기준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과 그결과 탐닉하게 된 마약이 만들어낸 사이키델릭 문화 등, 자신들의 생활과 감정을 그대로 청바지, 긴머리, 남녀 구분 없는 의복, 사이키델릭 아트와 록음악을 통해 구현된 패션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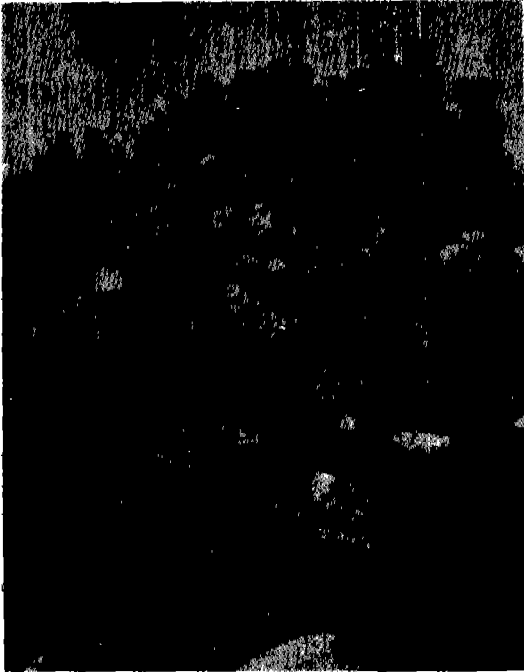
당시 히피들을 찍은 사진자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청바지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지적했던 것처럼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저급한 대응품”이었다. 히피들은 기성세대의 획일

적인 패션과 경직된 감각에 대한 반감을 낚아서 헤어졌거나 일부러 찢어 입은 것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던 벨보텀 팬츠(bell bottom pants, 판달롱)에 이르는 다양한 스타일에 징, 패치워크와 같은 자수, 페인팅 등의 장식을 더한 개성있는 청바지를 입어 표현하였다 [그림 1].



[그림 1] 정으로 장식한 청바지,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영국의 록그룹 가수들에서부터 시작된 남성의 긴머리가 미국 전역에 전파되어 유행된 것도 록가수에 대한 모방, 자연회귀의 경향, ethnic취미, 신비주의 종교의 심취 등의 영향도 있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긴머리가 갖는 자유와 반항의 이미지가 당시 젊은이들의 요구에 잘 부합되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남자가 모두 앞가르마를 탄 긴머리를 그대로 늘어트리거나 이마에 헤드밴드(headband)나 밴다나(bandana)를 매었으며 수영을 기르기도 했다[그림



[그림 2] 머리와 수염을 기른 히피들,
1966, 「The Summer of Love」

2].

히피나 그들을 모방한 젊은이들이 긴머리를 고수했던 또 다른 배경으로서 1960년대 말에 나타난 이상적 남성상의 변모를 들 수 있다. 영화 '졸업'(The Graduate, 1968)에서의 더스틴 호프만(Dustin Hoffman)과 같이 어딘지 미숙해 보이는 남성들이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성상으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들 사이에서는 여권운동의 영향으로 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온몸으로 해방된 육체의 자유를 만끽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긴머리에 화려한 옷과 악세사리를 걸치고, 여성은 굳이 여성다움을 추구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남으로써 결국 남녀가 동일한 헤어스타일과 의복을 공유하는 유니섹스 모우드로 변화하였다.

한편 사이키델릭 아트의 영향은 현란한 프린트의 직물과 사이키델릭 바디 페인팅(psychedelic body painting)을 유행시켰다. Beatles의 만화영화 Yellow Submarine(1968)의 한장면[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노랑과 빨강의 십라인이 있는 보라색 벨보텀 팬츠, 오



[그림 3] Beatles의 Yellow Submarine 1968.
「This Fabulous Century」

렌지색이나 녹색의 셔츠에 화려한 넥타이를 맨 모습 등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마약문화의 또다른 전파매체는 록음악이었다. 록가수들의 음악과 의상은 당대의 모든 희망과 가능성을 인생의 환각적인 이미지 속에서 상징화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을 연결시키는 공통적인 고리가 되었다. 그 노래말, 의상, 무대연출 등은 관습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짐으로써 반항적인 십대들의 맹목적인 추종과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록가수들 중에서도 가장 환각적인 음악을 연주했던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무대의상은 [그림 4] 화려한 색상의 이국적인 셔츠, 프린트 장식의 베스트, 길게 늘어트린 세쉬(sash)와 해드밴드, 요란한 비즈 등 인디언, 흑인, 집시 ethnic의 요소들을 다양하게 혼합시킴으로써 후에 헤비메탈(heavy metal) 록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의 헝클어진 머리, 중고품 할인시장에서 산듯한 모피, 깃털, 구식의 모조 보석류, 얇은 새틴제의 드레이퍼리류나 레이스류 등은 매스컴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십대소녀들이 이를 모방하였다. 세계적 우상이었던 Beatles가 히피풍으로 변모한 것도 히피 패션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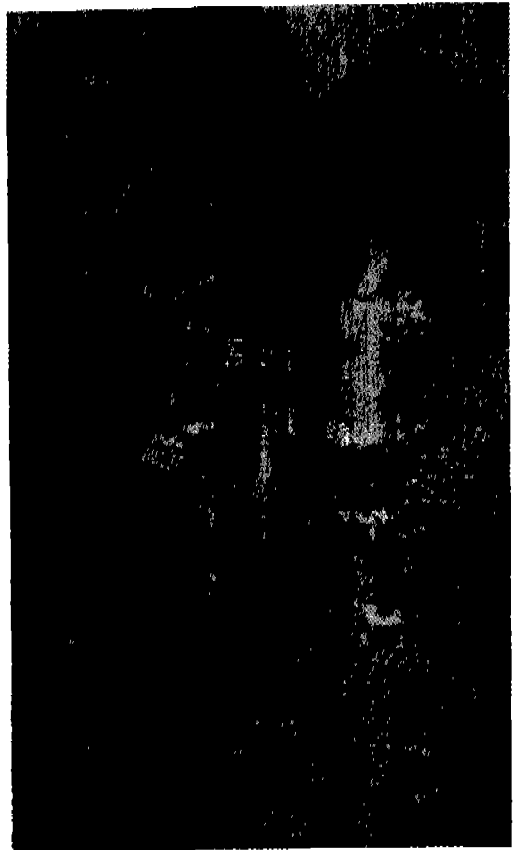
[그림 4] Jimi Hendrix
「This Fabulous Century」

이밖에 당시 군수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군복, 군모, 군화를 착용한 히피들의 모습에서 군복을 왜곡되게 표현함으로써 그 권위를 실추 시키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2. 사랑과 자연

“Make love, not war”를 슬로건으로 한 히피의 반전평화운동에서 사랑의 상징 물로 애용된것은 “꽃”이었다. 정치적으로 가장 도발적이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젊은 세대를 상징할 수 있었던 꽃의 모티프는 히피들과 그에 동조하던 젊은이들의 패션에도 도입되었다. 사이키델릭 패턴(psychedelic pattern)의 꽃무늬 셔츠나 재킷, 스커트에서부터 꽃무늬 테의 선글라스 등에 이르기까지 꽃을 모티프로한 다양한 디자인이 선보였으며[그림 5]낡은 청바지나 스니커 등에 그려넣는 무늬에도 애용되었다.

히피들은 꽃을 깃털 등의 자연물들과 함께 머리나 모자에 꽂던지 목걸이나 화관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들의 이러한 꽃장식은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자연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현대 소비사회의 극심한 물질주의로 피폐해진 도시의 인공성에서 벗어



[그림 5] 낡은 모티프로 한 의상
「Through the Looking Glass」

나 순수하고 가식없는 자연의 진선미를 추구하려 한 무가적 이상향에의 동경은 거리낌 없는 육체노출이나 맨발차림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 결과 자수, 손뜨개 등 수작업을 부활시키고 자연섬유와 천연염료를 선호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런 경향은 민족조 의상이 유행하게 된 계기의 하나가 되기로 했다.

3. Ethnic과 Nostalgia

히피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을 이국적인 것과 과거에 대한 흥미로 대체시켰다. 기존의 미국 문화에 대한 거부와 자연에 대한 향수에서 싹튼 ethnic에 대한 관심이 젊은세대에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다양한 이국적 요소들을 풍부하게 수용해 독창적으로 코디네이트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낭마와 같은 패

션을 창조해 냈다.

먼저,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샌프란시스코 Hashbury에서 찍은 히피 사진들을 수록한 G. Anthony의 저서 「The Summer of Love」를 중심으로 살펴본 히피의 ethnic 취향을 디테일별로 그 근원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디언 : A 라인 블라우스, 플레어 스커트, 튜닉, 워빙, 타이 다이, 프린지, 헤드밴드, 비즈, 인디언 네클리스, 인디언 귀고리, 아파치 백, 스쿼 부츠, 나바호 햇트, 깃털로 만든 머리장식
- 2) 유 럽 : 패치워크(patch work), 싸쉬(sash)
- 3) 서아시아 : 카프탄, 아프카니스탄의 조끼와 코트, 파키스탄의 조끼
- 4) 인 도 : 사리(sari), 페이즐리 무늬, 카스트마크
- 5) 중 남 미 : 멕시코의 풍초, 세라피(serape), 페루의 니트 백
- 6) 동 남 아 : 인도네시아의 타이 다이, 바릭, 폴리네시아의 문신
- 7) 아프리카 : 아프로 헤어(afro hair), 신체장식
- 8) 기 타 : 짐시풍의 플레어 스커트, 짐시 귀고리, 두건, 쇼울

「Vogue」지가 “Do your own thing”이라는 히피 슬로건을 제목으로 뉴욕의 민속조 상점들에서 판매하는 민속조 의상을 소개한 기사에 의하면, 이러한 민속조 의상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이 의류에서나 액세서리에서나 특히 인디언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많은 주된 이유는 인디언들의 자연적인 생활방식과 부족 내의 결속에 대한 동경, 백인들에게 거주지를 빼앗기고 보호지구에 묶여버린 소수민족의 미국 기존사회를 향한 저항정신에 대한 심정적 동조로 볼 수 있다. 또 히피의 중심지였던 캘리포니아가 인디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서부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 시기에 많이 제작되고 있던 서부영화들에 등장한 인디언 배역 배우들의 의상 등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비즈는 대부분 천연 소재를 그대로 상용하였기 때문에 히피의 자연회귀사상을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을 상대로 거리에서 판매함으로써 최



【그림 6】 neo hippy fashion, Dolce and Gabbana, 1993, 「Elle」(1993. 3)

소생계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과 패션을 일반에게 전달하는 매체의 역할도 했다.

또 히피들 사이에서 동양직물이 유행된것은 동양 문화와 종교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동양직물이 갖는 부드러운 촉감이 약물복용 상태에서 느끼는 환각적 경험과 성적 자유가 가져다 주는 향락적 쾌감을 연상시켰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시기의 특징적인 소재인 벨벳은 청바지를 즐긴 보통 히피들 보다는 Janis Joplin과 같은 록스타들의 무대 의상이나 부유층의 히피 취미를 위한 디자이너 제품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색상은 민속복이나 동양종교의 영향을 받은 강렬한 것들도 많았으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 보



[그림 7] grunge look, Perry Ellis, 1993, 「Fashion News」, v10. 18.

다는 오래 입은 옷에서 느낄 수 있는 낡은 듯한 분위기가 선호되었다. 따라서 회색, 연한 보라색 등 바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색상들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색상들을 불규칙한 동심원으로 표현한 흘치기 염색(타이 다이)도 히피의 대표적인 수공예 가운데 하나로 애용되었다.

한편 민속조의 유행과 함께 그 코디네이션 요소로서 nostalgia를 추구했다. 히피들의 nostalgia는 과거 어느 한 시기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순수했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이미지의 표현으로서, 영화 Viva Maria(1965)와 Far from the Modding Crowd(1968)가 부활시킨 에드워드시대 패션,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프릴, 아르데코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 사이키델릭 프린트 등이 다양하게 연출되었다.

4. 개인주의

히피패션은 히피 철학을 사상적 근원으로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풍부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이는 히피문화가 공동체적 조화와 동시에 개인주의적 풍토를 존중하였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흘치기 염색, 날염(바틱), 구슬 같은 민속공예나 손뜨개, 자수 등의 수공예가 유행하게 된 것도, 후기산업사회의 규격화가 가져온 익명성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그 보다는 오히려 대량생산품과는 달리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유니크한 만족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개성을 표출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인 이전의 누구도 그렇게 입은 적이 없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입는 코디네이션이었다. 파격적인 코디네이션은 히피들이 자신들을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로 주장하는 표현법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보여준 의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와 접근의 핵심은 “느낌(feeling)”에 있었다. 즉 그들은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든 기분 좋게 느껴지는 것을 입고 있다면 잘 입은 것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IV. 히피의 복식에 패션에 미친 영향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1960년대 말 히피 복식의 구체적 특성이나 이미지는 당대의 오프 쿠튀르 컬렉션과 후대 패션의 흐름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히피 이미지를 표현한 민속조와 사이키델릭 패션은 1967년 경부터 오프쿠튀르 컬렉션에 도입되어 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둘째, 긴머리에 허름한 청바지와 T셔츠 등 남자가 똑같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유니섹스 모드가 시작되었다. 셋째, 이전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지 못했던 의복들을 자유롭게 섞어 입음으로써 독특한 레이어드 룩의 경향이 생겨났다. 넷째,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개성적인 자기표현은 히피 이후 영국에서 탄생한 펑크 패션으로 그 맥이 이어졌다. 다섯째, 최

근 1992년 추·동 시즌 이후에는, 경기불황과 패션산업 침체의 악재 속에서 히피 패션을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시킨 네오 히피(neo hippy) [그림 6]와 냉소적이고 실용적인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를 반영한 그런지 패션(grunge fashion) [그림 7]이 선보여 히피의 독특한 이미지와 레이어드 룩을 계승하였다.

이와 같이 히피 패션은 의복의 기존개념에 대한 하나의 “혁명”이었을 뿐 아니라 그 혁명이 대중 패션으로 흡수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작업복이던 청바지가 히피들에 의해 스티치 등의 자수, 징, 페인팅이 더해짐으로써 1970년대 이후에는 중요한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변화된 것과 같이, 처음에는 반유행(anti-fashion)으로 시작된 히피 패션이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는 대중패션 자체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와서는 새로운 감각으로 다시 선보이고 있다.

특히 히피 패션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코디네이션에서 표출되는 “개성”과 “입는 즐거움”은 패션 전환기를 맞은 영 스트리트 패션의 디딤돌의 하나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히피 패션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레이어링을 즐기는 코디네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레이어링의 유행에 주목하는 동시에 1960년대 말 히피들이 그들의 독특한 레이어링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바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Yablonsky, L., *The Hippie Trip*, New York: Pegasus, (1969)
- 2) 김민자, 「2차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 Teddy Boys, Mods, Hippies, Skinheads, Punks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 vol.10, No.1 (1986)
- 3) 나체희, 「New Wave Fashion」이화여자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4)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212, (1988)
- 5) Anthony, G., *The Summer of Love*, Berkeley: Celestial Arts, 176, (1980)
- 6) Thorn, T., *The Dictionary of Contemporary Sla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0)
- 7)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 8) Brake, M., *Youth Cult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32, (1985)
- 9) 베비스 힐리어(조규화 역), 20세기 양식, 수학사, 240-246, (1993)
- 10) Yablonsky, L., *The Hippie Trip*, New York: Pegasus, 296, (1969)
- 11) Anthony, G., *The Summer of Love*, Berkeley: Celestial Arts, 396, (1980)
- 12) 'The Message of History's Biggest Happening', 『Time』, (August 29, 1969), p.46
- 13) 베비스 힐리어, 앞글, 248, (1993)
- 14) Nouveau Frisco, *Time*, 44-47, (April 7, 1967)
- 15) *This Fabulous Century: 1960-1970*, Time-Life Books, 177, (1972)
- 16) 베비스 힐리어, 앞글, 240-246, (1993)
- 17) Troxell, M.D. and E. Stone, *Fashion Merchandising*, 3rd ed., 61
- 18) Batterberry, A, and M, Batterberry,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Greenwich House, 369, (1977)
- 19) Kidwell, C.B. and V. Steel, *Man and Woman: Dressing the part*, Washi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52, (1989)
- 20) 베비스 힐리어, 앞글, (1993)
- 21) Jones, M., *Getting It On: The Clothing of Rock in Roll*, New Yourk: Abbeville Press, 78, (1987)
- 22) 앞글, 82.
- 23) Burman, B., *Fashion Revivals: from the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Bastford, 95, (1981)
- 24) New Yourk: *Do your own thing in St. Marks Place*, *Time*, 171, (June 1968)
- 25) 데이비드 본드, 20세기 패션, 정현숙(역), 서울 : 경춘사, 224, (1992)
- 26) Wilson, E and L, Taylor, *Through the Looking Glass*, London: BBC Books, 194, (1982)